

2014 학생의날 신문

총격
11월3일 학생의날로 밝혀져

2-3

“입시천국! 불신지옥?”
입시경쟁교육 특집

4-5

학생인권 과잉?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10-11

9시 등교?
학생들의 휴식을 보장할까?

12-13

헌법재판소에
이 면을 바칩니다.

14-15

**입시에
파문힌**



학생의 날

충격!!!

11월 3일, '학생의날'로 밝혀져

어느 학생의날의 풍경



twitter @skm01200120 그림 심규민

11월 3일이 학생의날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학기 중반에 있는 어중간한 날이 실은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생'의 날이라는 것이다.

학생의날의 유래는 1929년 일제강점기로 거슬러간다. 당시 조선 학생에 대한 차별에 분노한 광주 학생들이 11월 3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러한 저항의 움직임은 학생들의 조직적 활동을 통해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을 휩쓸었다. 이때 학생들은 일본의 식민지 교육 반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보장, 일본 제국주의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해방 이후로도 학생들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정치권력에 저항해왔다. 민주화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정권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문제에도 적용되었다. 특히 1989년에는 전국적으로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저항운동이 있었다. 이때 학생들은 ▲교육개혁을 요구하다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학생회 직선제 쟁취 ▲자율학습 폐지 ▲두발자유화 등을 요구하며,

등교거부·시험거부(백지동맹)·집단귀가·연좌시위·단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은 잘못된 사회와 교육에 저항하며 학생의날을 기념해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계속 탄압해오다 학생의날 폐지를 시도 하였으나, 끊임없는 저항 끝에 학생의날은 다시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7년, 정부는 11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고, 명칭을 학생의날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민족’은 남고 ‘저항’은 사라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며 반발했고, 정부주도의 형식적인 기념을 비판하며 '학생의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11월 3일이 학생들의 저항과 참여를 상징하는 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은 "11월 3일이 학생의날, 충격", "11월 3일이 학생의날, 왜죠", "11월 3일이 학생의날, 믿을 수 없어", "11월 3일이 학생의날, 저항이라니 무슨 말이요 의사 양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생대중이여 쫓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에서!

1. 검거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라
2. 검속자를 즉시 석방하라
3. 교내경찰권침입에 절대 반대하라
4. 교우회 자치권을 확립하라
5. 교내외에서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6. 직원회의에 생도의 대표를 참가시켜라
7. 조선분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8. 식민지노예교육을 철폐하라
9.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10. 전국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1929.11.11. 오쾌일(吳快一)
(광주학생항일독립운동 당시 배포된 학생들의 요구사항)

2014 학생의날에는?

경북	학생, 청소년 인권 캠프 '지금 행복하면 안 돼?'
일시	11월 1일 ~ 2일 (1박 2일)
장소	구미 해평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학생 청소년의 자치와 자율에 대해 탐구하고, 학교 안의 여러 문제 사항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한다.
문의	010-3001-6503
전북 남원	학생의날 의미 찾기 나들이
일시	11월 1일 08:00~18:00
장소	광주전남 일원
프로그램	학생의날 관련 근현대사 유적지 탐방
문의	063) 275-8035

인천	청소년 행복★이 빛나는 날
일시	11월 1일 14:00~18:00
장소	교육청 강당 및 소회의실, 교육청 야외 및 잔디
문의	032) 442-0812
경남 창원	제15회 창원 청소년 한얼제
일시	11월10일~11월14일 (매일 18:30~20:30)
장소	창원운동장 소극장 표현공간
프로그램	교사 공연 및 <사랑의 기적> 연극감상
문의	055) 238-2275
전남 고흥	고흥 청소년 축제
일시	11월 8일 11:00~18:00
장소	고흥문화회관
프로그램	체험&전시마당, 공연마당, 체육활동 마당 (고흥군 학교 대항전)
문의	fb.com/ghteenfestival

전남 영암	청소년을 위한 단편 애니메이션 관람
일시	10월 31일
장소	영암청소년수련관
문의	061) 281-4421
전북 장수	제10회 장수골 청소년문화축제
일시	11월 1일 09:30~16:30
장소	장수군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체육대회, 부스 행사, 학생의날 활동 영상물, 소원 풍선, 동아리 공연
문의	063) 275-8035
부산	청소년축제 "반" - 못 다 핀 꽃, 따뜻한 봄이 오길...
일시	11월 1일 14:00~18:30
장소	부산 시민공원 혼적극장
프로그램	발자국 전시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 사고 관련 자료 전시), 체험마당 등
문의	051) 853-6518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학생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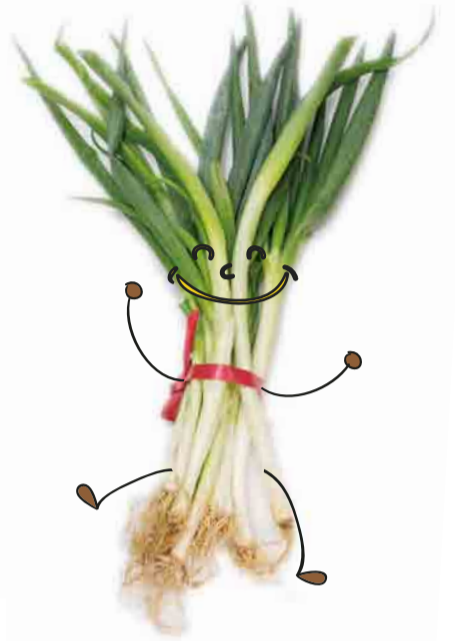
11월 3일은 학생의날이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내게 되묻는다. 그런 날도 있었냐며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조금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나조차도 잘 몰랐던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의날은 존재감이 없는 걸까? 일단 날은 날이지만,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수능이 매우 가까운 날이어서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조금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춰보려 한다. 바로 학교,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묘한 분위기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만 7세부터는 무조건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때부터 '어린이'는 '학생'이 된다. 초등학교는 그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학생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것들이 제한된다. 복장, 머리, 옷, 심지어 행동 범위마저 제한된다. 또한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덜했던 경쟁의 분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당장 닦쳐온 입시와 자신의 점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당장 시험기간의 학교와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학교에서는 수업시간마다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계속 떠들고 좋은 대학, 혹은 고등학교에 가지 못 하면 낙오자가 되는 듯이 겁을 준다. 심지어 어떤 교사들은 시험기간만 되면 방과 후에 무조건 남게 시키거나 매일 매일 쪽지 시험을 봐서 때리거나 감지를 쓰게 시킨다. 가정도 학교와 다르지 않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보내고, 뭐만 하면 공부 안 하고 뭐하냐는 핀잔이 날아온다. 이 과정에서 '사랑의 매'가 동원될 때도 많다.

이런 걸 찬찬히 보고 있다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취급은 마치 사람이 아니라 공부기계를 대하는 것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부 말고 다른 걸 바라봐서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다. '학생'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학생' 자체가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의날'이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쯤에서 떠오르는 말이 하나있다.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말이다. 요즘엔 흔히들 청소년들을 보고 그 말을 하면서, 먼저 사람이 되라고 들 한다. 그러나, 학생을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결국 학생을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학생으로 만드는 건 누구인가?

11월 3일은 학생의날이다. 나는 이 날이 더 이상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 속에서 학생은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학생, 공부기계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비로소 사람처럼 살 수 있을 때, 또는 그러기 위해 모일 때, 그때가 되면, 이 학생의날도 존재감 없는 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유기

정신차려보니 청소년 활동가가 되어 있었던 중학생. 수원 프트머리에서 글과 그림을 끄적이고 있습니다.

함께 누리는 완전한 자유, 교육해방

올해 17세의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다. 파키스탄 탈레반 통치 지역에 살면서 11살의 나이에 탈레반의 여성 교육권리 박탈에 항의하며 활동하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말랄라. 노벨평화상에 대한 국제정치적인 논란을 떠나 그의 삶에 대해, 스스로를 세워내며 연대의 공감대를 넓혀온 과정을 생각한다.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소리 없이 억압에 맞서온 아이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 인간답게 존중받을 권리, 균등한 기회를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UN의 '말랄라의 날' 선포일인 2013년 7월 12일 UN청소년총회에서 말랄라가 행한 연설이다. 10대 소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말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해 '학생의날'로 기념해온 날이다. 광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운동이었고 한 해에 그치지 않은 지속적인 항거이기도 했다. 소학교에서 전 문학교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였지만 그 방법과 내용도 풍부했다. 학생자치-학교자치를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교육내용의 변화까지를 요구했다. 말랄라의 10대가 1929년에도, 1960년 4.19혁명에도, 1980년 5.18민중항쟁에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먹고 입고 자는 껌데기'가 얼핏 풍부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조차도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교육격차의 그늘에 놓인 것들이다. 입시와 경쟁이라는 구조적인 억압이 당연시될수록,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에 대한 대항을 포기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는 없다. 스스로가 깨치지 않으면 알을 깨고 나오는 새도, 고치를 벗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도 없다. '함께' 누리는 완전한 자유가 '해방'이라면 청소년의 해방은 '교육해방'에 있다.

생명-평화-노동-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제대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외치는 일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옆자리 친구들과 가슴 터놓고 토론하고 협력하고,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일이 완전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혁명이고 교육해방이다. 청소년의 외침이 교실 안과 밖에서 흘러넘칠 때, 기성세대도 변한다. '세월호 몰살'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가슴들이다. 올해 학생의날에는 더 크게 입시폐지 함성을 외쳐보자. 푸른 하늘을 나는 저 새를 감싸는 바람이 공기라면 우리 교육도 그런 공기이고 바람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싱그럽게 주어지는, '함께' 누리는 완전한 자유, 교육해방! 새로운 교육을 향해 청소년, 교사, 학부모 같이 어깨 걸고 나아가자!

김정훈

전국교육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운동연대 공동대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안연론 '참소리' 운영위원

인문계고를 다니는 나에게 입시경쟁은 살인이다

나는 딱히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 대학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대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목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행태들은 그 시절에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그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선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자주 행해지고 있다.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는 이유로 '개새끼', '지랄한다'라는 욕설과 학생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보충수업과 야자를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빼더라도 반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들 힘들다. 왜 너만 그러냐?'라는 말로 나의 참을성을 문제 삼고, '그래서 대학 안 갈 거야?' 그런 고민은 대학가서 해. '다들 지금은 참고 있잖아.'라고 말하며 당연한 목표인 대학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여겨져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왜 입시를 위해 이런 행태들을 견뎌야 하는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답은 없다. 하지만 그 방향을 찾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는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향을 찾겠다는 것을 '다음'이 아닌 '틀림'으로 규정한다. 학생들의 미래를 오직 대학으로 국한시키며 학교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대학이 아닌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내 삶은 부정된다.

학교는 획일화된 교육과 비인간적인 행태를 개선하려고 하기 보다는 '네가 선택해서 온 학교니 못 견디겠으면 네가 나가.'라는 식의 폭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입시라는 틀로 학생들을 규정하여 입시경쟁을 버티지 못하는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런 비인간적인 학교에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어색해지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입시경쟁뿐인 학교는 나를 죽이는 곳일 뿐이다.

노정숙

학교를 폭파시킬 미래의 테러리스트?
광주에서 학교를 다닌다.

나에게 '입시경쟁'이란?

특성화고에 다니는 나에게 입시경쟁은 울컥거림이다

학교 가는 날이면 해가 뜨는 것을 지하철 창밖으로 본다. 청량리역을 지날 때 즈음 떠오르는 해를 보면 어쩐지 울컥울컥할 때가 있다. 내가 사는 곳은 은평구인데 왜 해는 청량리에서만 뜰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나에게 입시경쟁은 그런 울컥거림이다. 우리 학교는 종량구 망우동에 위치한 특성화고로 서울, 경기 각지에서 학생들이 온다. 그래서 통학거리도 다들 다양하다. 아침부터 달리기 시작한 지하철이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와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것들을 짊어 매고 있는 친구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있는 친구들과 나는 교실이 아닌 이른 시각 지하철에서 첫 인사를 한다. 그날 시험이라도 있으면 웃고 떠들 새도 없이 다들 손에 쥐고 있는 종이로 눈이 간다. 모두들 저마다의 울컥거림을 갖고 그렇게 학교에 도착을 하면, 교문에 들어서기 전에 뒤를 돌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교문을 들어가면 '야! 달이 떠야 다시 나오겠구나!' 하며 아침에 해를 볼 때와는 다른 울컥거림이 생긴다.

혹자는 이렇게 물음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너희가 뭐가 그렇게 약한 소리냐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특성화가 된 학교에 갔다고 해서 그 분야의 과목으로 수능을 보는 것은 아니다. 어느 계열의 학교냐에 따라서 직업탐구 과목을 선택한다. (인문계 학생들이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는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은 직업탐구를 본다.) 나의 학교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의 학교이기 때문에 회계원리와 상업경제를 배운다. 이 계열에 따라서 수능을 보는 탐구과목이 정해지는 것이다. 참고로 나는 영상과 학생이다. 그래도 수능에서 보는 직업탐구는 회계와 상업경제이다. 다시 말해 대학을 회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같은 경우는 영상에 관련된 전공과목 시간보다도 상경계열 과목 시수가 더 많았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 선택을 해서 온 학교지만, 수능을 위해 배우는 과목들의 시수가 적작 더 많은 것이었다.

앞서 무슨 약한 소리를 하나 말한
이들에게 이제 대답하고자 한다.
"그래,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우리지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입시로 허덕이는 것은 여기고 저기고 다들 게 없단
말이다." 요새 들어, 배움이란 것에 필요 없는 것은 없지만 시험만을
위한, 입시만을 위한 수업은 진정한 배움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 나만 하더라도 대학교 입시에 필요한 직탐 과목들을 배우는
시간에 "현금예금당좌예금현금성자산"을 하고 있을 때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문득 생각에 잠긴다. 수능을 보고나면 당장 2주만 지나도 내
머리를 떠날 것인데 말이다. 이 문제가 단순히 몇 과목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모든 이가 알 것이다. 시험용 공부로
가득 찬 시간표를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저런 건 수능 말고
어디에 쓰일까? 수능이라는 꼬리표만 떼면 얼마든지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텐데, 시간에 쫓겨 시험을 위해 하는 공부는 나중에 커서 영도
못 바뀌먹겠다.' 라는 생각들을 한다. 알아가는 기쁨은 이미 학교에는
없다. 그저 나를 평가하는 숫자들만 가득할 뿐이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숫자들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고, 또
입시경쟁의 한 부분이다.

김너나

은평구 해를 도통 못보고 사는 은평구민 김너나입니다.

국제고를 다니는 나에게 입시경쟁은 '학교의 유일한 초점'

대학입시를 대하는 우리 학교의 방식은 사실 적응하기 어려웠다. 마치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외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학교는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학교의 분위기, '수준 낮은' 다른 대학들의 이름은 무슨 금기어인 것 마냥 '설마 그런 데 들어가겠어?' 하는 시선들. 그러

다가 어찌다보니 학교 밖에서 그 '설마 그런 데'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 더 제대로 알게 되었다.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거침없이 빠져들다 보니 다양한 경우들을 접하면서 편견에서 벗어났고, 가고 싶은 대학도 생겼다.

문제는 그 가고 싶은 대학이 학교에서 바라는 목표 대학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유난히 다른 학교들보다 '친절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어느 정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일반고들에 비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입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두 다 (좋은 대학 합격율)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독여 주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얼굴에 오히려 침 뱉는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질 지경이다. (그래서 자주 담임선생님의 상담을 피한다.) 졸업할 때 학교 앞에 걸릴 현수막에서 내 이름은 빠지겠지. 그냥 하나쯤 **이 학교 학생 아닌 쌤 쳐주면 안 될까?** 그냥 학교도, 가족도, 지인들도... 그렇게 색안경 낀 관심은 거두어 주었으면, 나에게 대학입시는 쏟아지는 시선들의 무겁고 부담스러운 압박 같기만 하다.

학교 벽면에, 홈페이지에 로고처럼 박혀있는 문구를 하나 알고 있다. "Your Future, Our Focus!", 즉 우리의 초점은 너희들의 미래라는 것이다. 이 문구만큼 학교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문구는 없다. 문구대로 말하자면, 학교는 우리(학생들)의 '현재'보다 '미래'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미래라는 건, 능동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학생 개개인의 미래의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걸까? 학교에 직접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 학교에서 말하는 미래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서 3년 후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네가 졸업했을 때 어떤 대학을 들어갔는지, 네가 학교 명예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오직 대학입시 결과에만 학교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안의 '교육'은 이미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

치이즈

적응과 반항 사이에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고딩... 응응?

INTERVIEW

입시천국 불신지옥?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꾼'들의 모임>의 활동가
공현, 서린과의 만남



Q 투명가방꾼은 어떤 단체인가요? 대학거부선언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공현: 2011년에 대학거부선언,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하면서 만들어졌고, 한국 사회의 입시교육이나, 대학, 학벌주의 등에 관련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임이에요.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학거부자들이 대부분이고, 꼭 대학거부자가 아니어도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대학거부선언'은 자기 삶에서부터 대학입시, 학벌 등을 거부함으로써 대학입시나 교육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린: 매년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단체로 선언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든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Q 그런데 입시교육이 뭐가 문제인가요?

서린: 저는 경쟁교육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이 당연시된다는 것과 낙오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서로 서열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공정한 경쟁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이야기되죠. 그리고 낙오자가 생기고 이들을 사회의 테두리 밖으로 내모는 것이 문제예요. 또 교육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교육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데 경쟁에서 이긴 자만 더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Q 그럼 투명가방꾼에서 원하는 교육, 사회는 무엇인가요?

공현: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죠. 배움에 자격이나 입시 성적을 요구하는 게 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학력이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고 출신학교·성적 등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된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최소한 먹고 사는 데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회여야 그게 가능할 거고요.

서린: 사실 저희도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실험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론으로 그치는 것 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움이라는 게 꼭 대학이든 뭐든 교육기관에서 교사에게 배우고 인증을 받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작은 공부모임들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진 구덕구



사진 투명가방꾼

경쟁의 본질은 짓밟음

이 사회는 학생의 인권은 없다고 말한다. 또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라는 말이 널리 퍼졌고, 그 말은 "학생은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로 변질되어 왔다. 공부를 위해서라면 잔, 연애, 외모 가꾸기, 취미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윤리마저도 포기해야 한다. 정확히는 공부 자체가 아니라 '높은 성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높은 성적을 받아 순위가 높은 대학, 이른바 명문대에 입학하고, 후에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입시에 대한 공포, 취업에 대한 공포, 사회적 시선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그리고 잘 살아남게 하려는 거라는 명목으로 체벌과 같은 또 다른 공포가 주어져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어느 순간부터 교육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발전,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었다. '훌륭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인간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경쟁을 시킨다. 왜 인간이 경제성장용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며 그런 노동을 잘 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기계도 아닌데 말이다. 왜 공포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공포 속에 살아남으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경쟁에서 우위에 선다면, 보다 삶을 잘 영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한가? 경쟁이란, 배척되고 짓밟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당연한 것이라 규정하고 외면하는 사회에 물음을 던지고 싶다.

나는 '투명가방꾼'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인권을 포기해야 하고 타인의 인권도 짓밟아야 하는 사회에 작은 거부의 목소리를 냈다. **가해자로서든, 피해자로서든 그 구조 안에 있기가 싫었다.** 처음에는 여러 중압감과 체벌, 수면 부족, 앞서 말한 공포들을 견디기 힘들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주변에서 계속된 압박과 권유를 못 이겨 들어간 대학교에서, 또 다시 경쟁을 겪어야 하는 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혐오를 느끼며 한 달 남짓 다니다 도망치듯 나왔다. 내가 한 거부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겉쟁이의 토로이고 하소연이라 생각한다. 그저 의미를 두자면 차별과 멸시 속에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워서, 그곳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 두려워서 거부를 한 것이다.

..이찬우 투명가방꾼 회원



사진 홍이

대학·입시 거부 8대 요구안

1. 줄 세우기식 무한경쟁교육에 반대한다.
2. 획일적인 정답만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주입식교육에 반대한다.
3.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4. 교육의 목표가 입시와 취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누구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6.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야 한다는 편견과 강요에 반대한다.
7. 대학과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학벌차별과 학벌사회에 반대한다.
8.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Q 대학거부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공현: 주변 대학거부자들을 보면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알바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시민단체 상근자인 사람도 있고, 커피 공부한다고 유학 간 사람도 있고, 각자의 경제 상황, 관심사에 따라서 다르게 살고 있어요.

서린: 대학거부를 하고 나서 모두 행복해졌다고는 할 수 없죠. 사실 어떤 선택을 한다고 갑자기 행복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계속 고민을 가지고 살면서,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정리가 되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 다닐 때보다 더욱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대학거부를 하기 전과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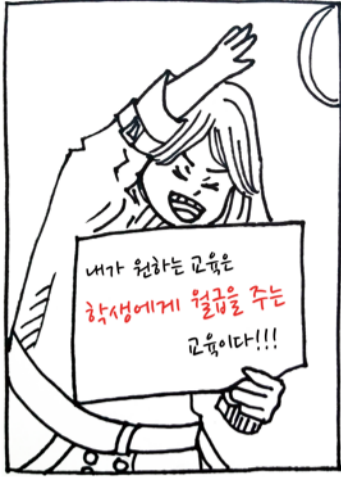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공현: 대학에 가지 않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문계고라 특히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외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꼭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해요. 그래야 대학이 그 정답의 지위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린: 고민이 되면 연락을 주세요^^ 딱 뭔가 결단을 낸 상태에서 문을 두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 얘기가 가장 하고 싶어요.

가방꾼의 길로 사람들을 재단하는 학벌사회에서 가방꾼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사회를 외치는 단체 '투명가방꾼', 어디서나 가방꾼의 길이를 따지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는 학벌사회에 저항하는 단체 '투명가방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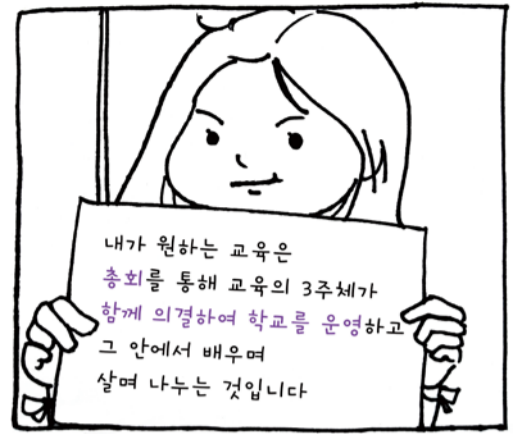
카페: hiddenbag.net 메일: hiddenbag@gmail.com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급식비, 교통비, 필기구 값, 준비물 값, 교복 값... 학교를 다니다 보면 주변엔 온통 돈 나갈 구멍투성이다. '의무 교육'이라며 몇 시간씩 학교에 붙들어 놔서 알바 하나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교무실 청소나 심부름이니 봉사활동이니 하는 (어른들은 돈 받고 하는) 일들을 당연한 듯 시키면서 돈까지 내라니 웬 말인가?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느라 돈 한 푼 못 버는, 남의 돈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_임희연**



사교육이 횡행하고 체벌 같은 인권침해로 얼룩진 교육의 원인 중 하나가, 교육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좋은 대학(사회적 지위)을 얻기 위한 교육이니까요. 물론 단편적으로만 바라봐 다른 문제점을 놓친 시선일 수도 있지만 우선 교육 자체가 교육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교육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닌. **_서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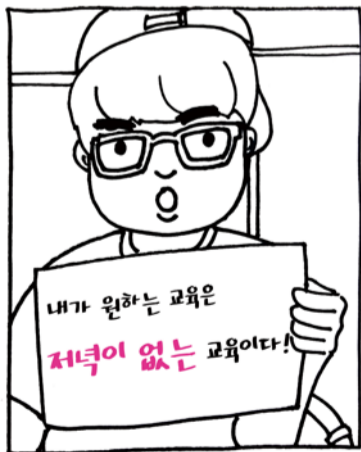
대한민국 공교육에서의 학생자치권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민망한 문구는 교내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할 때나 쓰이곤 합니다. 교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학생, 선생, 학부모 교육의 3주체 모두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_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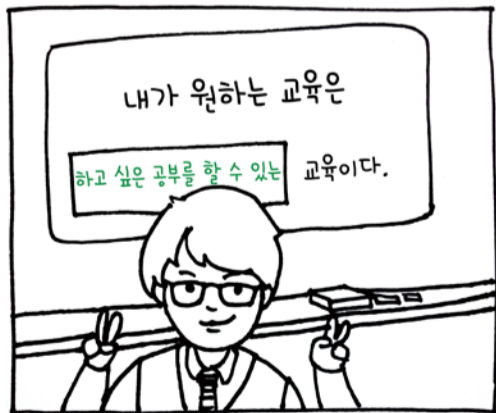
'희망의 우리학교'가 원하는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구분이 없는 교육이다. 교육은 가르침을 빌미로 일방적인 권력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함으로써 이뤄지는, 서로가 배워가는 것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우선시 되는 교육이 있어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_희망의 우리학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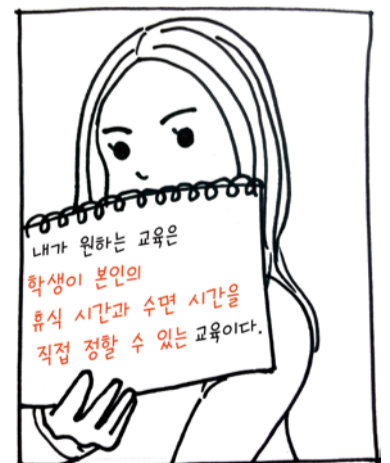
그림 목은지



제가 원하는 교육은 저녁이 없는 교육입니다. 그 이유는 늦게 동안 '야자', '방과 후' 등으로 여가 생활, 휴식, 가족 간의 시간도 즐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도 아닌 강제로 저녁이 있는 학교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성과 수면권, 휴식권이 보장되는, 저녁이 없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_허지형**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공부를 강요받고, 원하지 않는 공부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탓에 정작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얻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원하지 않는 공부에 대한 성적이 요구치에 못 미칠 경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는 현 교육제도를 또한 이해할 수 없다. **_올리버**



요즘 학생들은 등교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한다. 그리고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학교를 하면 벌써 자정이 넘어가는 시각이다. 이렇게 수동적인 생활을 하다보면 어느새 본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사라져있을 것이다. 나는 학생이 직접 자신의 휴식 및 수면시간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현재의 이런 교육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_황재연**

학생자치기구의 탈을 쓴 스펙기구 학생회?

이런 거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도 학생회다

나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원이다. 핵심간부였다. 책임감이 컸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책임을 가진 거대한 자리라고 생각했다.

학생부와 협상도 했었다. '무색 전략'을 세워 두발규정안으로 협상을 할 때에는 '빌빌' 기는 자세로 권리나 인권은 입에도 올리지 않고 삶의 질과 불편함이라는 측면으로 공격했다. 이 협상도 학생회에서 주최한 여론 조사를 했다는 구실로 끝이 났다. 학생부 선생님은 상처를 입으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왜 균형을 지키지 않느냐고 질타하셨다. 우린 거기서 그만뒀다, 입시에 바쁜 다른 간부들은 더 이상 의지가 없었다.

행정, 입법, 사법이 뚜렷하지 않은 학교에서 '집행'의 주체는 분명히 균형이 필요할 수 있다. 구성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학생회가 하나? 아니 학생'복지' 부에서 한다. 그런데 왜 학생회에서 균형을 지켜야 하나, 균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집행자다. 집행자라면 듣기 좋은 의견부터 듣기 싫은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학생회가 할 것은 학생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다.

불통과 강압이 지배하는 시대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일도 못하는 정치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국회 의원수를 줄이자!'라는 주장을 그럴싸하게 들리게 한다. 그럼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되나?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성을 회복하고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스펙 쌓기의 전유물로 전략한 학생회를 보고 있다면 학생회를 없애자는 주장이 영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심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회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학교의 민주성을 높이는 방향은 곧 학생의 권리를 찾는 길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시도가 비참하게 밟히고 좌절됐지만, 그 시도는 우리에게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학생부에게 인식시켰고, 극심한 체벌과 규정 집행은 줄어들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표하기 위해 힘썼고 그 과정에서 대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앞을 보자. 시대는 흐르고 있고 세상은 언제나 진보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자. 그게 단지 희망이더라도.

민감도

얼마 안 되는 보수교육감과 살아가는 울산지역 고3

유명무실 학생회는 폐지하자! 대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이 접수한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두발복장규정 완화와 비 오는 날 우산 비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 친구는, 정작 학생회장이 되자 어떤 공약도 지키지 못했다.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회는 아무 것도 학생들의 뜻대로 할 수 없다. 굳이 학교를 뒤바꾸고 갈아엎거나 교칙을 고치려 하지 않아도, 화장실에 휴지를 놓자던가,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우산을 비치하자던가 하는 소소한 안전들조차도 교사들의 "그건 아니지"라는 한 마디에 묻혀버리고 만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학생회는 학생들의 입시 스펙을 위한 장치로 변해버린 지 오래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학부모 대표·지역사회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속 빠진 채, 학생 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교사들과 학교를 다니지도 않는 학부모들만이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학생 자치기구의 탈을 쓴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학생회는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생들로 구성해야 한다. 교사나 학교장이 간섭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학생 자치기구로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 예산·결산,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학교 급식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고, 그 외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학교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바꿔 나갈 수 있게 된다면, 늘 기계적으로 학교를 왕복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학교 다닐 맛이 나지 않을까.

익명

학교에서 내 돈 내고 똥을 먹는 게 싫어서 학교를 때려 쳤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돈 받으면서 똥을 먹게 된 서울의 한 탈학교청소년

웹툰 연민의 굴레 리뷰

<연민의 굴레>를 주세요

지금 저는 학생회실 탁자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탁자 가운데, 화이트보드 앞 의자가 제 자리죠. 네, 이 학교 학생회장이 집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이야기는 웹툰 <연민의 굴레>에 관한 것입니다. 1년 전 선거에 나갔던 제가 기대했던 생활은 연민의 굴레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연민의 굴레는 련이와 민이, 문제아와 모범생을 대표하는 두 아이의 학교생활 이야기입니다. 민이의 학생회, 련이의 미스터리 클럽이라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상상했던 학교 생활을 그린 만화죠. 그러나 만화 속 회장인 태원이 같은 재미있는 연설도, 정화의 방송실 조화도, 부회장 수열이의 서류 정리도 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실에서 한 거라곤 축제 준비밖에 없는 것 같네요. 웹툰 속 민이가 들어갔던 학생회는 이런 곳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도 제겐 현실 속 미스터리 클럽이 있습니다. 예향원이라는 부실을 가진 다도 동아리죠. 미스터리 클럽처럼 아무 활동도 없는 곳도, 제가 설립한 곳도 아닙니다. 다도 대회가 있기에 마냥 놀 수도 없는

동아리죠. 하지만 대회만 마치면, 부실은 저희 것입니다. 예향원은 정말, 어느 학교에도 없을 미스터리 클럽 같은 곳이었죠.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바뀌면서 동아리 활동 외의 부실 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련이가 부원들과 웃고 정들던 미스터리 클럽 같은 예향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말예요.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 기구입니다. 동아리 부실은 동아리 부원들의 것이죠. 회장으로서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학생자치활동을 장려한다던데, 대체 저는 어디서 활동해야 하죠? 제가 졸업할 때 "여러분, <연민의 굴레>같은 생활을 상상하셨나요? 그건 만화일 뿐입니다."란 말이 나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학생들은 진정한 자치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연민의 굴레>를 주세요!**

박수빈

인천 한 중학교의 할 일 없는 백수 회장



연민의 굴레
네이버 웹툰
총 121화 (2011.09 완결)

연민의 굴레 -쉬는 시간-
네이트 웹툰
총 66화 (2014.06 완결)

글·그림 재활용
제공 학산문화사



네이버에서 연재되던 웹툰으로, 주인공인 '련'과 '민'이 각각 교내 동아리 '미스터리 클럽'과 학생회에 가입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이트 웹툰이나 단행본을 통해서 번외편격인 '연민의 굴레 쉬는 시간'도 읽어보실 수 있어요.

학교라는 곳이 진짜로 학생이 주인인 곳이 될 수 있기를.

즐겁게 눈치 안 보고
학교 생활 하고 싶어요.

학교 좀 늦게 가게 해주세요
밥 좀 먹고 등교하고 싶어요
-제주의 모 중학생

세월호 특별법!!!!
제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름 학교의 부회장이데
교장 선생님은 저희의 의견을
반영은 커녕 고려도 안 해보시니
학교가 변화가 없어서
학생회가 욕을 다 먹어요.. ㅠ 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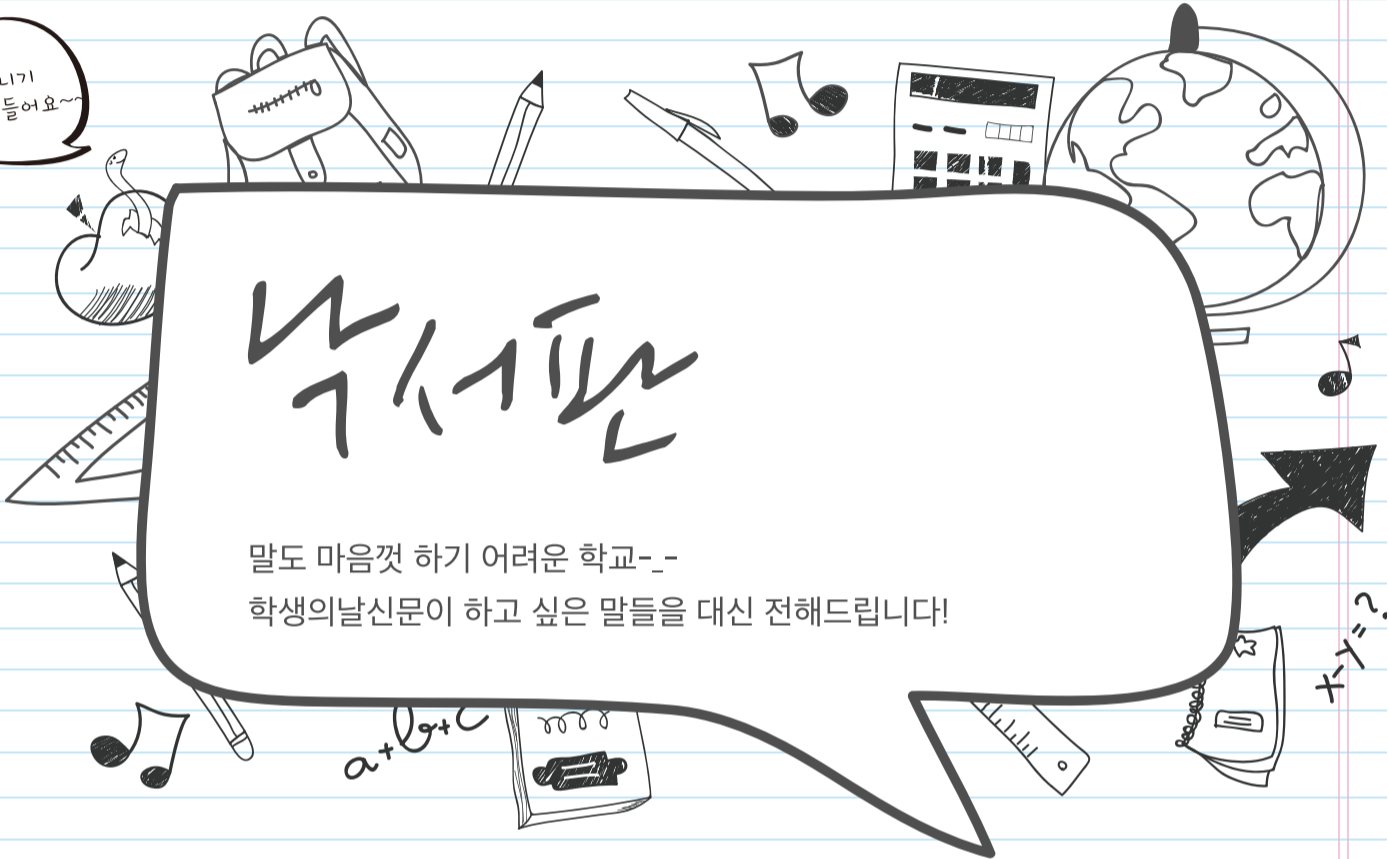
성적으로 비교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오교시 폐지 경북 구미시도 원합니다!!!!!!
꿀잠자고 상쾌하게 학교 가고 싶다 ㅠ 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주말에, 명절에
숙제가 왜 말인가 ㅠ ㅠ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말도 마음껏 하기 어려운 학교--
학생의날신문이 하고 싶은 말들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체벌 금지가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친구들이 잠도 못 자고
공부만 해요
애들이 죽어가요

이제니호 기미야라매야 영영
크으구구

학교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장이 너무 간간하다

학교 이사장님 상위권 학생들
따로 반 만들고 해서 돈도 엄청 받던데
학교에도 좀 쓰세요
-서울의 사립 인문계 고등학생

성소수자로서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태어난 게 내 탓도 아닌데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본인들도 하지 않는 것을
학생이라고, 어리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은 5210원!!
알바생들 10시 이후로 일 시키지 마세요 ㅠ

용인 신봉고 방승부 말도 안되는 인권탄압 중지하라!
학생들한테 테러범이라니 말이 되냐?

생활복을 흰색 티만 입어야 하나요 왜..

살려주세요

에어컨 쯤 많이 틀라

1,000여명에 가까운 학생 분들의
많은 글이 모였으나, 신문 지면 관계상
모두 다 신지를 못했습니다. ㅠ ㅠ
죄송합니다. 흑흑

학교 건물이 4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라 겨울에 문을 닫아도 찬바람이 들어오고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도 한 학년에 2칸밖에 없어서 쉬는 시간만 되면 밀리고 위생상의 문제도 염려됩니다.
교육당국에서 학교노후시설조사 및 보수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10시간 넘게 학교에 있다 보면
갑자기 허무해진다.
그런데 나 혼자만이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인 게 아니라 슬프다.

강제 야자&보충 폐지!

핸드폰 걸지 마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때
친구들끼리 사진 좀 찍게~!!

군산여고 매점
빨리 만들어
주세요ㅠㅠㅠㅠ

수면권을 보장하라,
7시간 미만으로 자는 학생들이 자살률도 높았다.
사람답게 살자, 좀 자고 공부하자.

학생회장입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것 하지만
사실은 학생을 무기로 총알받이로 앞세워
학부모를 상대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냉/난방기구에 사용되는
예산과 실태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울산의 고등학생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예전에 있던 벌점제도와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네요.
발전도 없고 효과도 없고
학생의 태도를 바로잡아주기보다
그저 말 잘 듣는 적당한 노동자를
키우는 제도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종례시간 끝지 말고
일찍일찍 마쳐 주세요

저희 학교에 배움을 원하지 체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주세요.

제발 강제 방과후 좀 시키지 마요ㅠㅠ
강제 주제에 돈은 왜 걸어갑니까! 우리 초 2 중학교!!!!

맛는 뭐어대!

이 땅에서 공부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다.
친한 친구도 성적 앞에선
내가 놀려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잔인하다

안녕하세요.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규정 좀 완화시켜주세요ㅠㅠ

새벽까지 공부하지 않는다고
혼나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난 공부보다 음악하고 싶다!!!!!!

세정상영고등학교
방과 후 좀 없애주세요

야자 감독 안하면
솔직히 쌤들도 좋잖아요 ㅎㅎ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교육이 똥 같다

**누가 봐도 잘못된 학교,
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가?
학생이 먼저 시작하자!**

권력
수호
권력
수호
권력
수호

우리학교 머리규정 있다는 거
외사촌 오빠한테 말하니까
아직도 그런 학교가 있냐면서
엄청 놀람 ㄱ ㄱ
-경남의 한 중학생

동구마케팅에서는 이런일이!!

학교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로 제공한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은

감봉 3개월!

학교 돈을 빼돌리라 지시한
동구마케팅고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에도

여전히 근무 중!

학교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 안중훈 선생님은

파면?

학교비리,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파렴치한 비리사학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동구학원 공익제보자 부당징계저지 공동대책위

학교 건물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생명수당 주면서 공부 시키는 건 어때요?

2014 전국 학생인권침해 어워즈



모든 지역들이 막상막하의 학생인권침해 실태를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2014 전국 학생인권 침해 어워즈>를 장식한 학생인권침해 지역은 과연?

대전



울산



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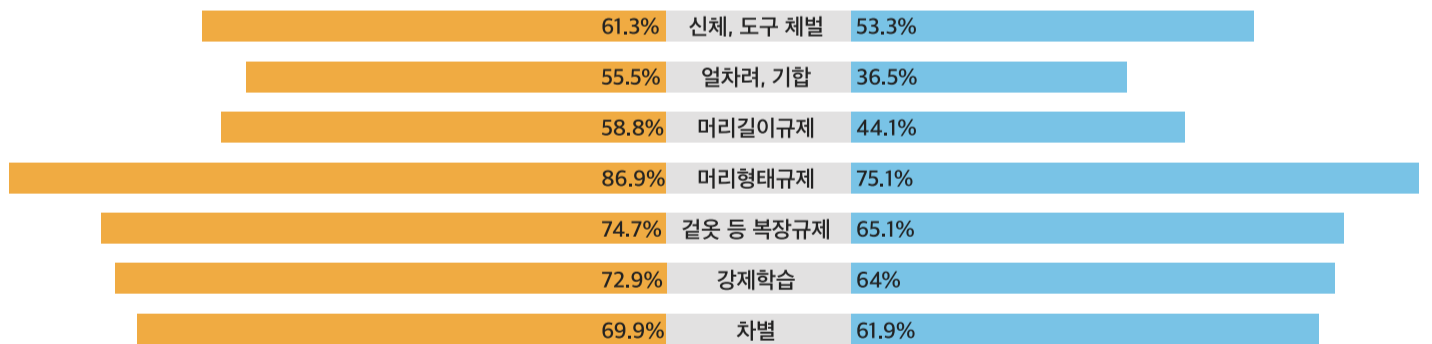
부산



사립학교 학생인권침해문제 더 심각

사립 인문계고

공립 인문계고



폭력과 강압으로 얼룩진 학생인권 상황

- 전국 5845명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국 중고등학생 4명 중 3명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부터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운동본부)은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5845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1주일에 1~2번 이상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당한다는 학생은 40.4%에 이르렀다. 학원 및 가정에서도 약 45%의 응답자들이 체벌 및 언어폭력을 겪었다. 또한 37.8%는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학습을 시키는 일이 '자주 있다'라고 답했다. 절반의 응답자는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규제를 자주 또는 가끔 당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 표현과 참여 현실도 열악했다. 학교 규칙에 학생 의견이 매우 잘 반영된다고 답한 사람은 6.9%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은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이 걱정되느냐는 문항에 매우 그렇거나 조금 그렇다고 했다. 학생들의 의견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을수록 두발복장규제 등이 심하고 상벌점을 교사 마음대로 주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학교에 있을 때 숨이 막힌다고 답했고, 50% 이상은 학교가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하며,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번 발표에는 지역별 비교도 포함됐다. 대전은 때리는 체벌, 두발규제 등을 겪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울산은 기합을 주는 체벌과 복장규제 등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1위였다. 강제 야간 자율학습 등을 당한다는 비율은 경북이 제일 많았고 대전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머리카락 길이 규제 2위, 머리카락 색깔/모양 규제로는 4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임에도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당한다는 사람이 많아 4위에 올랐다. 인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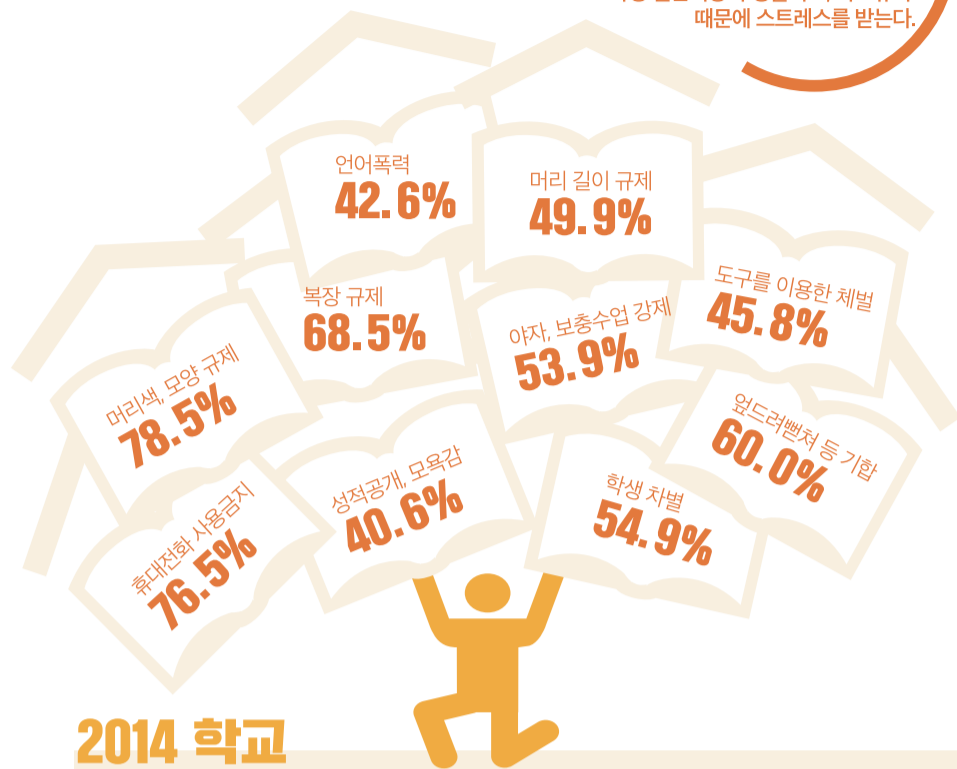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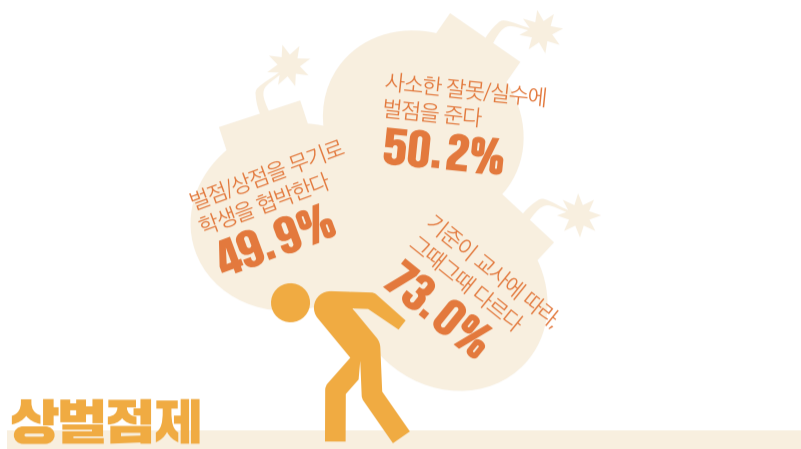
고등학교 안에서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체벌, 두발규제, 강제학습 등을 당한다는 비율이 8~10%포인트 가량 더 높아서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두발규제와 체벌 등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법으로 금지된 체벌을 경험한 응답자도 많아서, 운동본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법조차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지역별 비교를 하긴 했지만 학생인권 개선의 필요성은 전국적인 공통 과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규칙 제·개정 때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대전이 84.2%로 가장 많았지만, 13위의 광주도 65.8%의 학생들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번 조사의 목적에 대해 학생인권 현실을 확인하고 지역별로 새로 뽑힌 교육감들에게 구체적인 노력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중고등학생들은 "학생인권 침해, 인천이 1등이 아니라니", "학생인권 침해, 생각보다 심하네", "학생인권 침해, 우리 학교도 만만치 않은데", "학생인권 침해, 아직도 두발자유도 안 된..."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년 학생인권은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57.8%

학생 절반이상이 생활지도, 학교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응답: 전국 중고등학생 5,845명

조사기간: 2014.09.13.~10.13 (약 한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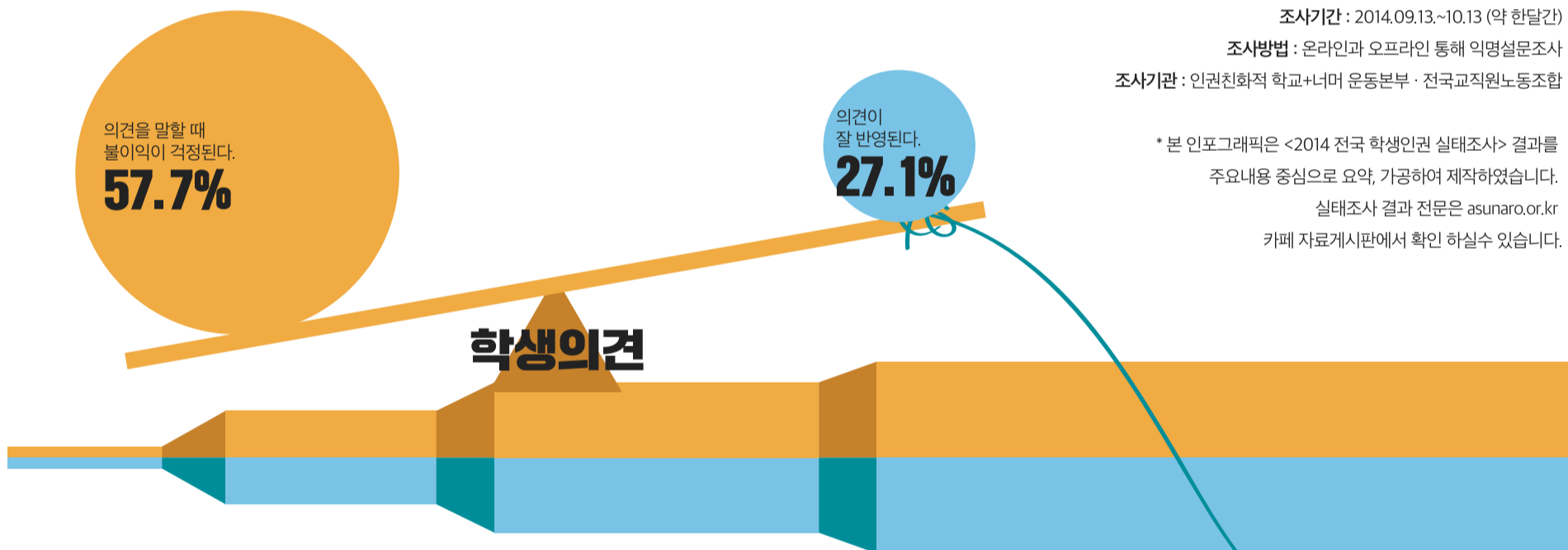
조사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 익명설문조사

조사기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본 인포그래픽은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요약, 가공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문은 asunaro.or.kr

카페 자료게시판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학생인권과잉시대” 개꿀 뜯어먹는 소리.

학생인권보장은 과잉이 아니라 기본이다.

아직도 학교에는 맞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강제적으로 야간학습에 내몰리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괜히 나섰다가 혼날까 두려워 말을 삼키는 게 2014년 학교의 모습이다. 일부 인권침해 문제들이 완화가 되었다지만 여전히 학생은 같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학생인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요즘은 학생인권이 너무 과잉 보장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따위의, 사회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여겨지는 정도도 안 지켜지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런데 과잉이라니, 이걸 무슨 개 꿀 뜯어먹는 소리인가? 50대 때리던 걸 1대만 때려도, 두발규정이 ‘반식’에서 ‘염색만 규제’하는 것으로 바뀐다 해도 인권침해는 인권침해다. 학교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개 꿀 뜯어 먹는 소리들이 아직도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은 아직도 20세기에 선언된 보편적 권리인 인권조차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존재, 이 정도라도 보장해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니 말이다.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을 요구하고 보장받는 것이 과잉이라 욕먹을 문제란 말인가?

권리의 주인인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이런 개 꿀 뜯어 먹느라 정신없는 한국 사회를 정신 차리게 만들 유일한 해독약이다. 법에 감혀버린 학생인권을 끄집어내 학생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과 나의 행동이 필요한 이유다. 학생들도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학교와 사회를 위해 두려움을 넘어 더 크게 외치자. “학생들에게도 인권은 감지덕지가 아니라 기본이다” “학생도 같은 사람이다”.

—익명의 기고



81.8%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

01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가
같이 강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누구 먼저 구하실 건가요?

·
·
·

..? 왜 둘이 같이 있어??



02

학교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학원과 보충학습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러 가실건가요?

·
·
·

...? 왜 놀면 안돼?



그림
미추연

학교에, 학원에, 입시에, 눈치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답답한 삶을 바꿔요.
학생들에게 실 수 있는 시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학습시간
셋다운'이
필요해!

학습시간 셋다운을 위한 5대요구

- 1)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 9시 등교! 3시 학교! 하루 6시간 학습!
- 2) 학생들에게 충분한 쉼 날을!
- 수업일수 빼기! 방학일수 더하기!
- 3) 우리 시간은 우리 것!
- 보충, 야자, 학원 강제학습 금지!
- 4) 빼앗긴 저녁과 휴일을 돌려받자!
- 야간학습 폐지! 주말/휴일 학교, 학원 금지!
- 5) 과잉학습으로 밀어 넣는 경쟁 교육 개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자신의
수면/휴식시간
부족하다."

학생
2명 중
1명,

열악한 학생의 휴식권 실태

미국국립수면재단 권장 수면시간

8.5 시간

인천 평일 수면시간

6 시간

서울 평일 수면시간

5.8 시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과 인천지역모임에서 학생 휴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에는 서울에서 2,919명, 인천에서 708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했다. 평균 수면시간과 휴식시간뿐만 아니라 수면/휴식시간에 만족하는지, 몇 시간의 수면과 휴식이 필요한지, 휴식을 취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묻는 설문이었다. 이 결과는 8월 13일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발표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생들의 열악한 수면과 휴식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자신의 수면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절반을 훌쩍 넘었고(서울 58.8%, 인천 65.1%),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도 2명 중 1명꼴이었다(서울 47.9%, 인천 54.6%). 편하고 즐겁게 쉬어야 마땅할 휴식시간에 '싹 것 같지 않다', '초조하다'는 학생도 3분의 1을 넘었다. 휴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학교와 학원 등 입시공부 일정이 첫째였고, 어른들의 눈치, 불안감 및 경쟁의식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서울 5.8시간, 인천 6.05시간이었고, 평일 평균 휴식 시간은 서울 2.4시간, 인천 2.9시간이었다. 이는 한국 성인 평균 수면시간(6.9시간), 여가시간(4.5시간)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미국의 국립수면재단이 10대 청소년에게 권장하는 최소수면시간인 8시간 30분에도 크게 못 미쳤다. 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은 서울 9시간 33분, 인천 9시간 54분으로 성인의 노동시간 평균을 1시간 넘게 웃돌았다.

학년이 높을수록 수면/휴식시간은 줄어들고, 학교에 있는 시간은 늘어났다. 수면과 휴식 만족도도 더 낮을 뿐만 아니라, 쉴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졌다. 아수나로는 이에 대해 "대학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쉬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느끼는 입시에 대한 압박 또한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입시경쟁 교육제도 개선을 1위로 꼽았다. 그에 이어 학교 수업을 비롯한 입시 관련 공부시간을 줄이고, 학생의 휴식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아수나로에서는 "휴식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교육당국은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더해 학습시간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마련하고, 휴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Q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등교시간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경기도 9시 등교가 시작되기 전에 전교생 희망 등교시간을 조사해서 학교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거절당했습니다. 후에 저는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목소리가 묵살당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Q 1인시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등교시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등교시간이 늦춰진다는 것 이전에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야자를 하는 학생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자습시간, 수업시간, 쉬는시간과 같이 모두 규정된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 자유로운 시간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쉬는시간이나 점심·저녁시간 또한 입시를 위한 시간으로 환원되거나 입시를 위한 회복시간이 됩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휴식이란 것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시간의 감옥을 깨는 것이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9시 등교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시행 여부를 검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등교시간을 조사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학교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등교시간을 늦추게 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이 필요성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는 학교 측에서 등교시간을 늦추려는 이유가 학생의 생활 때문이 아닌, 교육청의 지시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교시간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과정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구보다는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Q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1인시위 또한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시도도 없지는 않았습니. 이는 어떤 집단 에 문제를 지적하는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일 이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인터뷰를 보고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힘내

"왜 등교시간을
학교 마음대로?"

INTERVIEW

학교 앞 1인시위에 나선 전효진씨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이니까 공부나 해라.", "너 혼자 그러는 거다. 너무 이기적이다."와 같은 말을 듣기보다는 '내 삶에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 등교,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할수 있을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9시 등교가 시행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교사, 의외로 많은 학생들의 반대 속에서 시행되었던 9시 등교는 학생의 수면권 보장을 목적으로 했었다. 내가 지금 하려 하는 말은 그것이다. 과연, 9시 등교가 정말로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에 도움을 줄을까?

요즘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대다수이고 24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등교시간이 늦춰져도 학교 시간도 따라서 같이 늦춰졌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이런 이야기이다. '수면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가시간을 포기하거나,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선택지가 '학습시간' 하나 늘어날 뿐이지 그리 다를 바는 없다. 그리고 이 선택은 굳이 9시 등교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에 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sns에서 나온 정말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해주려면 수업일수를 줄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나는 이것도 말이 쉽지만 정말로 수업 일수를 줄인다면 글썽, 대다수의 중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등학생이라면 생겨난 시간 동안 수면보다는 학습을 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원래 자던 시간을 줄여가면서라도 학원을 하나라도 늘리고 책을 한 자라도 더 보려고 하는 판에,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수면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초, 중학생은 물론 고등학생

까지 모두 수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인가.

답은 바로 입시 위주의 학습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은 물론이고 청소년 자살, 학교 폭력, 성적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라고 감히 확신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채롭고 활기찬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 통로가 돼가는 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교를 나와 편하게 먹고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는 세상이다.

이런저런 것 따지지 않고서라도 그냥 봤을 때, 이런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과연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물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취업난 속에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이다. 어찌 보면 청년 실업률 같은 이런 사회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입시 위주 교육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건 안다.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로 청소년의 수면권과 더 나아가 **행복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아닐까.

김하은

글 쓰면서 따뜻한 밥 먹고 살고 싶은 고딩어

밤늦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최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시 등교를 전면 시행한데 이어 야간자율학습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그에 더해 다른 야간학습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의 야간자율학습 뿐 아니라 독서실, 학원 등 야간학습을 위한 공간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야자를 하는 대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학교 후 학원을 간 뒤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독서실 문 닫는 시간은 10시보다 훨씬 늦은 새벽 2시입니다. 또한 다니는 학원이 끝나는 시간도 밤늦은 시간인 10시입니다. 10시에 학원이나 야자를 마치고 나왔다고 해도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제를 다 끝내고 씻고 누워 시계를 보면 1시, 2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가 잠드는데, 그렇다고 잠을 오랫동안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로는 계속 쌓여가고 몸은 지칩니다.

주변에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을 보며 "이야 대견하네, 철들었어."라며 치켜세웁니다. 또한, 밤늦게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교실의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학교의 자랑으로 내세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도 늦은 시간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학교에서 '야간'에 공식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학생들이 밤 10시, 12시 넘어서까지 학원과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학생다운' 모습이라며 칭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야간자율학습은 물론 늦게까지 영업을 독서실이나 학원들 모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원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도 공부해야 한다는 사회의 풍조,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제도나 학원, 독서실 등 야간학습공간들의 존재입니다.

공부를 밤늦게까지 한다고 훌륭하고 바른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밤에는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내기 위해서라도 야간자율학습 폐지, 야간학습공간들의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이제

글 재준 없지만 관심이 많던 학생으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바쁘다!

얼마 전 뜨거운 화제였던 9시 등교 정책에 대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이야기중 하나가 "9시 등교를 하게 된다면 분명 학교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였다. 충분히 공감한다. 등교를 9시까지 하고 수업시간이 늦춰짐으로서 당연히 학교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견 등교시간'만'늦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지역에서도 9시 등교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확실히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훨씬 여유 있게 준비하고 등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9시 등교제'만' 받아들여진다면 과연 어느 학생이 좋아라만 할까. 뻔히 보이는 늦어진 학교시간을 보면서 한숨 쉬는 학생들만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 여유 있는 등교도 좋지만 수업 시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해를 보며 등교하고 해를 보며 학교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은 숨 막히게 하는 건 너무 많은 수업 일수이다.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 5일제의 시행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방학이 짧아졌다. 여름방학은 한 달을 겨우 채우는 기간이었고 방학기간이 짧아진 이유가 과도한 수업일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총 수업시간은 줄지 않았는데,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줄여놓으니 1년에 190일이라는 수업일수의 하한선은 무색해지고, 자연스럽게 학기가 길어지며 방학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게 방학이냐", "그냥(주말에) 학원에 좀 더 많이 다니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부의 압박은 여전히 심해지고 있고, 긴 하루 수업 일과와 과중한 수업 일수로 인해서 '아파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 '자유시간이 없다.' 라고 느낄 때가 많다. 지금 학생들은 충분히 긴 시간, 아니, 너무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무자비하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긴 학습시간은 부담과 압박이 될 뿐,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 전혀 아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여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담입니다

청소년들의 행동

2014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회이슈는 '세월호 참사'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4 학생의날 신문'에서는 정읍과 서울에서 행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읍에서 '청소년 세월호 추모의 날'을 준비한 전북 정읍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사진 장성렬



서울에서 청소년 '가만히 있으라', '방과후 농성장' 활동을 제안한 양지혜님

사진 청소년대표윤로바이러스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Q 정읍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해주세요.

'정읍 청소년 세월호 추모의 날' 기획이 저희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진행했던 활동이에요. 추모의 날 행사를 마련하면서, 학생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유도하며 서명 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학생회장단에서 몇몇 회원들이 가까운 광주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집회들과 청소년 기자회견에 참석해왔어요.

Q 주변에서 이런 활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많은 분들이 추모 집회를 위한 모금을 할 때 적은 돈이라도 넣어주시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서 많이 울었어요. 어른들도 세월호 참사에 공감하고 슬퍼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일이라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큰 힘이 되었어요.

Q 더 많은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제도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솔직히 입시 준비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마음 놓고 참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학생들은 미성숙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는 것 아닐까 싶어요. 사회적 분위기도 이러 한 인식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또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응원해준다면 지금보다 학생들의 사회참여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Q 어떤 활동을 하시고 계신지 소개해주세요.

저의 첫 세월호 추모 행동은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이에요. 이후 청소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했 어요. 8월에는 '열여덟 고등학생이 단식을 시작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9월에는 '방과 후 농성장'을 진행하며 청소년으로서 광화문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교육부의 노란 리본 금지 지침을 반대하며 국가 인권위 제소와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Q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참사 이후,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누군 가는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겠구나... 뉴스에선 나날이 나쁜 소식만 들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지만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구나하는 무력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 글을 봤어요. 뭐라도 안하면 못 견디겠다 싶어서 행진에 참여하게 됐고, 그게 시작이었죠.

Q 다양한 반응들을 만나게 될 거 같아요. 주변의 반응들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현장 속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공부나 하라"는 말을 들으니 속상했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에 "기특하다"거나 "미안하다"라는 말도 청소년을 정치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또 다른 '가만히 있으라'라고 생각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할 때, 청소년은 지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청소년, 정치에 위해 끼칠 수 있어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참정권 제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들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에 참정권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과 전반적 교육수준에 비추어보면 만19세보다 나이가 더 적은 사람도 충분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전 세계 167개국 중 89.9%의 국가가 만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현행 만19세인 선거 연령과 더불어 다른 참정권 제한 연령들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18세의 청소년들에게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주

어지고, 이 외에도 많은 권리와 의무들이 만18세,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렇기에 "만19세의 참정권 부여는 특별히 고수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청소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년 후인 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들이 시간이 흘러 다음 선거에는 선거권을 가지 게 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선거권 이외의 여타 참정권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능 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정당"하며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하면 정당의 기능이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민주당 의원은 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만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만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것을 의결했다며 한국에서도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월, 새누리당 모바일정당에서도 투표연령을 만18세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보수적인 국회에서조차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용어사전

합헌: 법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부합한다는 의미

헌법재판소: 법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부합하는지 판결하기 위해 설치된 재판소 (법률계의 최종보스)

헌법소원: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결을 내려달라 청구하는 일

헌법재판소와 여러 끈대
분들에게 이 편을 바칩니다.

구멍들

아침에 일어나보니 집 앞에 구멍이 뚫려있었다. 어제만 해도 버스 정류장이 있던 곳이었다. 뉴스에서는 싱크홀 얘기를 했다. 멀쩡해 보이던 길이 무너져 내리고 지나가던 차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리고 나는 그 뉴스를 보며 세월호를 떠올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은 세월호라는 구멍을 통해 우리 앞에 드러났다. 여러 모습과 잔물이 그곳으로 쏟아져 내렸고, 대한민국의 맨 밑바닥에 고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뚫린 구멍들을 발견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흘러나가고 있던 인간성도 봤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부족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세월호라는 구멍의 크기는 각자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멍의 크기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다.** 복지 지반이 부실한 이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구멍이 등장한다. 누구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구멍 앞에 멈춰 서서 밑바닥을 내려다본 사람들은 구멍을 지나친 사람들에 대해 탄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본 것을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물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리에 나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떼어줄 만큼 대단하지는 않다. 구멍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 중 하나로서 나는 세월호가 작은 구멍에 불과할까 봐 두렵다. 진짜 구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까봐, 바닥을 파헤치기가 꺼려진다. 하지만 발밑에 구멍이 나 있음에도 위를 보고 걷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힐끔힐끔 구멍을 훑쳐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세월호가 교과서에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해봤다. 단원 제목은 뭐까? 『불운한 교통사고?』 『기억되어야 할 비극?』 나는 진심으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기대한다. 그저 종이 위에 정지된 글자에 불과할 추모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 전과 후로 나뉜다. 라는 요점정리를 원한다. 대한민국이 더 나은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게 욕심일까? 구멍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욕심일 것이고, 구멍을 메우려고 노력한다면 가능성일 것이다.

오늘도 버스정류장을 다시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구멍을 메운 건지, 아니면 또다시 한 겹의 거짓말을 덧칠하고 마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위험하니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섰었다. 뭐가 진짜 위험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정한별

이것저것 남기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아직은 용인토박이



배앗긴 주인권을 되찾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이다. 하지만 대리자를 뽑는 선거에서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유는 “미성숙하다.” 라는 것인데 이런 미성숙한 청소년에게도 국가의 중대사를 맡긴 나라가 있다. 바로 스코틀랜드이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영국연방에서 독립에 대한 안건을 국민투표로 정하기로 하였다. 놀라운 점은 16세부터 선거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주인의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우리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마저 청소년이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만18세 청소년들에 선거권과 선거 및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정신적·신체적 미성숙이라는

국회의 귀찮음의 산물, 셋다운제

처음 셋다운제에 대해 들었던 것은 2011년 상반기였다. 셋다운제가 수면권 보장을 위한 거라든지, 게임이 마약 같기 때문에 국가가 제재해야 한다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무리 들어봐도 게임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게임이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꼴이었다. 그리고 그 발상 자체는 경찰 국가 수준이 아닌가 싶다. 게임 중독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늘, 어찌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 조사해봤을 때 10대보다 20대, 30대의 평균 게임 시간이 길다고 한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셋다운제를 청소년들에게만 적용하는 건 엄연히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

진짜 생각해보면 참정권조차 없는 만만한 청소년에게 셋다운제를 시행함으로써 게임 중독으로 생긴 문제들이 해결된 척하려는 것 같다. 청소년 문화 시설이나 여가 활동을 할 환경이 잘 마련되지 않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어? 애들이 게임만 하네? 이걸 죄악이야. 차단해야겠어!” 한다. 참 근본부터 해결하려 들어야지, 도대체 뭘 위한 정책인지. 정치(政治)는 한자로 부조화스러운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래의 뜻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게임 중독이 돼 상황이 심각한 정도의 수준에 다다른 청소년이야 있겠지만 적절히 즐기지만 하는 청소년도 분명 있다. 그렇다면 게임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람은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는데 시간을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만약 학원이나 따위의 이유로 밤늦게 집에 들어와 잠깐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결정할 권리마저 뺏은 것이다. 게임 중독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이해시키며 당사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게임 중독이 수면권에 문제가 있다면 인터넷 접속, 독서라든지 야간자율학습 등 밤 시간에 수면권이 침해된다 싶은 것들은 죄다 셋다운하는 것이 맞다. 애초에 수면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정부는 셋다운제로 수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더욱 행복하고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정정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학생이라 힘든 일개 중학생입니다.

이유였다. 그러나 미·영·프 같은 선진국은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과 이번 스코틀랜드 국민투표를 볼 때 당시 현재의 판결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선거권만 유독 청소년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병역법·공무원 자격과 임용 등의 공통점은 나이 제한이 만18세부터 라는 점이다. 만약 현재의 말대로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면 이는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국가의 일을 맡기는 행위가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미성숙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엄청난 모순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헌법의 원리를 무시하고 청소년의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그렇기에 정기적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교육·사회를 맡길 대리인을 뽑는 주인권을 청소년에게서 박탈시켜버렸다.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청소년들에게 국정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를 통해 민주국가의 주인임을 인식시켜 준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이라는 시대착오적 근거로 아직도 청소년에게 주인권을 박탈시키고 있다. **우리들은 배앗긴 주인권을 되찾아오고 국가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한다.**

김동혁

온라인과 오프에서 하는 정치활동 땀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편찬 듣는 부천지역 학생

입시에 파묻혀버린 학생인권을 찾기 위한

아수나로, 저항의 레시피

준비물

우울한 학교에 대한 깊은 뻥침 한개
재미없는 교육을 바꾸고 싶은 욕망 한줌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노력 적당량

TIP!

아수나로는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학생, 청소년, 비청소년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학생의날 신문만으로 아쉬운 당신을 위하여!
아수나로에서 만드는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구독신청하세요! yosm.asunaro.or.kr/5

초간단 방법

01 asunaro.or.kr로 접속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카페에 가입하세요.

다양한 활동소식과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02 아수나로
활동회원 신청서를
보내세요.

아수나로는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성별·나이·학력·성정체성 등에 상관없이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단체예요.

03 관심있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거리캠페인, 토론회, 기자회견, 퍼포먼스,
시위 등 학교와 사회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중에 관심 가는 활동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보세요.

04 본격 지역모임에 참여하세요.
또는 지역모임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아수나로는 현재 광주, 부산, 서울, 수원,
인천, 창원, 구미, 대전, 성남, 울산 등
지역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새로운 교육을 위해 필요한건?

바로 권리의 주인인
당신의 행동! 참여! 저항!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해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사이트 asunaro.or.kr
메일 asunaro@asunaro.or.kr
페이스북 fb.com/onlyasunaro
트위터 [@onlyasunaro](https://twitter.com/onlyasunaro)



<2014 학생의날 신문> 편집진 한마디

츠베 나는 서울특별시의 이츠베다.

파이루 으악 학생의날 신문 안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안 만들어도
그냥 막 자유롭게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나를 살.

윤쓰리 이 신문은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일 년에 한 번씩 발간되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이
신문을 받아본 분은 7명에게 신문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혹 미신이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이 신문을 받고 7명에게 나눠준 사람은 실제로 애인이 생겼다고 하며...

미쁨 시력과 건강과 멘탈을 갈아 넣었습니다. 종이비행기 접지 마세요...

<2014 학생의날 신문>

펴낸곳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펴낸날 2014년 학생의날 즈음

디자인 결 (eoltteol@gmail.com)

문의 asunaro@asunaro.or.kr (아수나로)